

작가 미술품 판로개척 국비 지원

전북문화관광재단 창작공간 활성화 지원 선정단체 '디자인 예보', 작가 미술장터 개설 지원사업 선정

(재)전북문화관광재단의 창작공간 활성화 지원사업 선정단체인 '디자인 예보'가 2023 작가 미술장터 개설 지원사업'에 선정, 국비 9,45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디자인 예보'가 창작공간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기획 추진한 '2022 고택아트페어 & 재즈페스타'를 통해 지역 미술시장의 가능성을 확인했고, 이를 통해 중앙 공모사업에 도전하게 됐다.

'작가 미술장터 개설 지원사업'은 작가들의 미술품 판로개척을 위해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국 10개 단체가 최종 선정됐다. 전북에서는 유일하게 '디자인 예보'가 뽑혔다. 이에 오는 9월 완주군 소양고택을 무대로 '고택아트페스타(Gatek Art Festa(이하 GAF))'를 추진할 예정이다.

'디자인 예보'는 2018년 전북 최초의 도시 재생형 미디어아트 전문 레지던스인 '예보 미디어 레지던스'를 오픈해 지역 아티스트의 창작



2022 고택아트페어 모습

활동 지원 및 미디어아트 분야의 대중화를 위해 활동하는 단체다.

GAF는 멋스러운 고택을 걸으며 작품을 통해 예술가와 소통하는 지역 축제이자 미술장터로, 도내뿐 아니라 중앙무대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이 참여한다. 또한 전북의 대표적 문화콘텐츠

인 고택이 예술 도구이자 축제자원으로 활용돼 전북을 넘어 K-콘텐츠로 재평가된다는 점도 주목할 점이다.

'디자인 예보'의 김현정 대표는 "GAF의 목적은 분명하다. 서울 및 수도권에 편중된 미술작품 판매시장을 지역으로 분산하고, 작가가 대중과 작품으로 직접 소통하며 경제적 소득을 창출하는 경험적 기회를 만드는 것"이라며, 전라북도 미술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와 각오를 밝혔다.

재단 이경은 대표는 "지원사업을 통한 다양한 시도들이 결실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보다 많은 도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및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GAF는 오는 9월 7~11일까지 완주군 소양고택에서 만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디자인예보(070-4245-7196, www.designevgroup.com)에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불길하면서도 매혹적인 메타버스와 ChatGPT'

전주대 4인 교수 모여 신간 도서 집필

전주대학교에 재직 중인 네 명의 연구자가 일 년여 동안의 스터디와 콜로키엄을 바탕으로 한 연구 성과를 책으로 엮어 냈다. 신간 도서 '불길하면서도 매혹적인 메타버스와 ChatGPT'가 그것이다.

이에 따르면 디지털스토리텔링을 전공한 이용욱 교수(한국어문학과), 게임학을 전공한 윤형섭 교수(게임콘텐츠학과), 응용언어학을 전공한 황요한 교수(영어영문학과), 한국고전문학을 전공한 백진우 교수(한국어문학과)가 각자의 전공과 식견을 바탕으로 집필에 함께 참여했다.

현직 교수들이 집필했지만, 메타버스와 ChatGPT가 가져온 AI 시대의 변화 양상을 알기 쉽게 예측하고 풀이하여 일반 대중도 읽을 수 있도록 배려했다. 특히 저자들이 대학 교육 현장에서 체감한 급격한 변화 양상을 바탕으로 하여 현실적인 문제의식을 담아냈다.

/장은성 기자



<왼쪽부터> 백진우·윤형섭·이용욱·황요한 교수

이 책에서는 '불길하면서도 매혹적인 인공지능', '메타버스와 교육', 'ChatGPT와 교육', 'ChatGPT로 글쓰기' 등 4부로 나눠 인공지능, 메타버스, ChatGPT를 풀이했다.

한편 이 책은 새로운 기술이 가져올 미래에 대한 기대와 불안감이 공존하는 현실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선시대 마지막 어진화사 석지 채용신 작품 4점 기탁

항일 운동가 김직술 후손 김대수씨·신태인음장 정성섭씨, 초상화 2점씩 정음시에 전달

조선시대 마지막 어진화사(임금의 어진을 그린 화가) 석지 채용신(1850~1941년)이 그린 초상화 4점이 정음시에 기탁됐다.

시는 지난 15일 "전주에 거주하는 항일 운동가 김직술의 후손인 김대수 씨와 정음시 신태인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정성섭 씨가 채용신 화가가 그린 초상화 각 2점씩을 시에 기탁했다"고 밝혔다.

김대수 씨가 기탁한 작품은 1911년에 그린 김직술(1850~1920)·김환규 부자(父子)의 초상화다.

시 관계자는 "채용신이 그린 부자 초상화는 현존하는 예가 많지 않은데 보존상태가 양호해 문화재적 가치가 높다"고 평가했다. 이어 "1910년대 채용신의 전성기 작품인 점, 당시 태인 고현내(지금의 철보)에 있던 김직술 집에 머물면서 그렸다는 점에서 채용신과 정음의 역사적 인연을 알려주는 대표 유물"이라고 강조했다.

김씨는 "집안의 자랑이지만 더 나은 보존환경에서 더 많은 이들이 보고 기억하는 것이 문화재의 가치를 높임은 물론 조상을 오래도록 기리는 길이라고 생각해 기탁했다"고 밝혔다.

고현내 출신인 김직술은 정음에 남긴 대표적 항일 운동가이다. 1889년 동몽교관의 관직을 맡았고, 1903년 7월 내장산에서 열린 항일 호남유림대회에 참석했으며 1906년 4월 면암 최익현과 함께 항일 의병 활동을 주도적으로 전



전주에 거주하는 항일 운동가 김직술의 후손인 김대수 씨와 정음시 신태인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정성섭 씨가 채용신 화가가 그린 초상화 각 2점씩을 정음시에 기탁했다.

개했다.

정성섭 씨가 기탁한 작품 역시 초상화다. 정치열·백준화 부부를 그린 것으로 작품 연도는 각각 1930년과 1931년으로 추정된다. 채용신이 그린 부부 초상화 역시 현존하는 예가 많지 않아 문화재적 가치가 높다는 평가다. 채용신이 신태인에 있던 '채석강 도화소'에서 주문 받아 그린 것으로, 1930년대 작가의 기법과 당시 병풍 제작 기술이 그대로 남아 있어 유물로서의 가치를 더한다는 평가다.

정치열(1856~)은 신태인 출생으로 1909년 통정대부 중추원 의관과 후릉참봉의 벼슬을 지

낸 것으로 알려졌다.

초상의 초상화를 기탁한 정씨는 "어렸을 때부터 제사를 지낼 때 꼭 초상화를 걸었다"며 "집안 대대로 물려 받은 두 점의 초상화가 더 오래 보존되고 더 많은 사람의 기억 속에 남으며, 특히 많은 사람이 채용신 선생을 아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15일 시장실에 가진 기탁식에서 이학수 시장은 정음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초상화를 기탁한 두 분께 감사드린다고 "잘 관리하고 보존해 소중한 유산이 후손들에게 전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채용신은 서울 삼천동에서 출생이나, 조선 말기인 20세기 초 호남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며 초정밀묘사로 머리카라 한 읍, 옷 주름 한 자락도 놓치지 않고 사실 그대로 그린 최고의 초상화가이자 어진화사로 평가받는다. 특히 고종의 어명으로 태조어진과 철조어진의 주관화사(主筆畫師)로 참여하기도 했다. 그간 그린 '최익현 초상'이 2007년, '황현 초상'이 2006년에 보물로 지정, '윤남지상'이 2012년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됐다.

1910년 무성서원 일원에 머무는 것을 시작으로 정음과 인연을 맺은 그는 1923년 신태인 육리마을에 '채석강 도화소'를 세웠다. 이곳에서 본격적인 초상화 주문 제작 방식의 공방을 운영, 초상화의 대중화를 이끌었다.

/정음=김대환 기자

전북도교육청, 전북음악교육아카데미 교육생 모집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교육소외계층 학생들에게 음악 전문교육 기회를 부여하고, 전문적인 교육과 다양한 예술적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2023년 전북음악교육아카데미'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도내 초등학교 2학년~중학교 3학년으로, 피아노, 성악, 현악, 관악, 작곡 등 총 5개 분야에 50명을 선발한다.

특히 음악적 재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경제적 이유로 전문교육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사회통합전형 학생을 50% 내외로 선발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은 18~25일 오후 4시까지 전북음악아카데미(위탁기관) 홈페이지에서 응시원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실기시험 및 심층면접은 오는 6월 3일에 실시되며, 자세한 사항은 전북음악아카데미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한편 선발된 학생들은 6월~12월까지 전북대학교에서 주말을 이용해 교수 및 전문강사로부터 교육을 받게 된다. 또한 정기공연을 통해 예비 음악가로서 관중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일로 접수하면 된다. 실기시험 및 심층면접은 오는 6월 3일에 실시되며, 자세한 사항은 전북음악아카데미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한편 선발된 학생들은 6월~12월까지 전북대학교에서 주말을 이용해 교수 및 전문강사로부터 교육을 받게 된다. 또한 정기공연을 통해 예비 음악가로서 관중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가족뮤지컬 '금식왕-발가락 떡볶이의 비밀' 소리전당서 공연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은 5월 가정의 달 기획공연으로 가족뮤지컬 '금식왕-발가락 떡볶이의 비밀'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오는 20~21일 모악당 무대에 올려지는 '금식왕-발가락 떡볶이의 비밀'은 초등학교에서 일어나는 유튜브와 관련된 아이들의 일상적인 이야기를 코믹하게 구성한 작품으로, 유튜브 스타를 꿈꾸는 아이들이 과열 경쟁을 벌이고,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단골 떡볶이 가게의 위기를 서로 힘을 모아 해결한다는 내용의 재미있고 교훈적인 가족뮤지컬이다.

구독자 수 140만 명, 누적 조회 수 17억 회를

훌쩍 넘은 인기 유튜브 채널 '금식왕'을 원작으로 한 '금식왕-발가락 떡볶이의 비밀'은 '발가락떡', '구구떡', '초아', '반희' 등 출연진 12명 모두 실제 유튜브 채널 '금식왕'에 출연한 크리에이터들로 구성된 유튜브를 보는 듯한 친밀함을 느낄 수 있다.

또한 유튜브 채널 '금식왕'의 영상 속 장면을 그대로 재연한 무대 세트와 특수효과가 돋보이는 무대 연출, 신나는 음악과 안무 등을 인터넷 공간이 아닌 생동감 넘치는 대형무대에서 직접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생동감을 더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